

원형과 변형: 박정희 시대 석굴암 수리공사

강희정*

- I. 서론
- II. 복원이라는 이름의 변형
- III. 변형으로 인한 인식의 왜곡
- IV. 맺음말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경주에서 보는 석굴암은 1958년부터 1964년까지 대대적으로 수리, 복원된 상태의 모습이다. 현재의 석굴암이 『삼국유사』의 서술대로 신라 중대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한 석굴사원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배우지만 김대성이 창건했을 때의 석굴암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다. 창건 당시의 형태를 석굴암의 ‘원형(原形)’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토함산에서 만나는 현재의 상태는 원형에서 ‘변형’된 석굴암이다. 김대성이 건설한 석굴암의 원래 구조와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변형 양상과 과정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석굴암의 원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학문적인 논의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¹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은 그만큼 현재 석굴암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 교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로올라 대학 아시아학 전공

1 대표적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2022년 개최된 학술 심포지움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를 들 수 있다. 당시 석굴암의 원형을 주제로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발표자료집』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pp. 27-139 참조.



Fig. 1. 일제강점기 복원된 석굴암 *Reconstructed Sökkura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sŏn ch'ongdokpu, Chosŏn kojŏk tobo 5, pl. 1829).

는 뜻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의 석굴암 복원과 보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대의 수리에 대해서는 미술사가 아니라 건축역사학계의 성과를 제외하면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²

본고는 박정희 정부 시기 대대적인 수리공사로 인해 변형된 현재 석굴암의 구조와 그에 기반한 우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석굴암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석굴암이 인도에서 전해진 석굴사원의 한 갈래이자 종착지라고 파악하는 석굴패러다임, 둘째, 석굴암이 방형(方形) 전실(前室)과 원형(圓形) 주실(主室)의 이중 구조로 이뤄졌다는 인식, 셋째, 주실과 본존불(本尊佛)이 동해 감포의 대왕암을 향하도록

건설된 호국(護國) 사찰이자 신라 왕실의 원찰(願刹)이라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본고는 이 세 가지 인식이 변형된 석굴암 외형에 기초해 형성된 인식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1960년대 시행된 석굴암 수리공사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석굴암이 이 시기 수리공사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외형 변화의 배경과 변형 내역, 수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원형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변형 이전의 모습을 바탕으로 김대성이 구상한 석굴암의 원래 모습을 유추하여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는

2 윤재신, 「석굴암, 세 번의 수리 공사와 세 개의 공간 개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8 (2019), pp. 89-100; 윤재신, 「석굴암의 돌은 말한다: 석불사 석굴의 건축 평면과 벽면 설계」, 『건축역사연구』 29-1 (2020), pp. 21-37; 윤재신, 「석굴암의 신화 분석과 건축공간 복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2-4 (2023), pp. 7-18; 우동선·김태형, 「배기형의 「경주 석굴암 보수공사 설계도」(1961)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8-2 (2019), pp. 53-64; 우동선·김태형, 「김중업의 경주 석굴암 보수공사 설계(1961-1962)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30-4 (2021), pp. 41-52; 이정아, 「1960년대 보존원칙의 수립과 변화의 연구—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에서 원상, 원형, 복원 용어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32-2 (2023), pp. 7-20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보편화된 인식과 달리 석굴암은 본디 원형 평면을 지닌 주실만으로 구성된 단일한 불당(佛堂)으로 건설되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전개하고, 변형에 기초한 인식이 그릇된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이다.

II. 복원이라는 이름의 변형

1. 1958~1964년 수리 공사의 배경

석굴암은 일제강점기인 1913-1915년 총독부에 의해 대대적인 복원 수리 공사를 거친 이후, 구조적 변화에 따른 누수와 결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fig. 1).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제는 1917년(2차), 1920-1923년(3차)에 걸쳐 재보수를 시행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누수와 결로로 석굴암 주실 내부 벽면과 조각에 이끼가 끼고 검게 변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제는 벽면을 증기로 세척하기도 했다. 처음 석굴암을 전면 해체하고 보수할 당시 일본인들은 새로운 재료로 각광받던 시멘트를 사용하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었다.³ 그에 따라 석굴암 외벽에 공간을 두고 측벽을 쌓은 후,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내부 석재들을 고정했다. 하지만 시멘트는 석굴암을 하나의 거대한 응결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 굴 내·외부 모두 습기 조절에 실패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습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수리 때문에 동해의 운무(雲霧)가 굴 내에 침입하여 바닥이 늘 젖어 있고, 조각에 물이 흐르며 이끼가 끼었다’는 비판 기사가 빈발했다.⁴

해방 후인 1948년 10월 14일 <동아일보>는 “석굴암의 위기”라는 제목 아래 ‘석굴암이 충분한 연구 없이 수리를 하고 벽면석 뒤에 석회를 두텁게 넣어 굴 내에 습기가 가득하여 조각이 항상 젖어 있다’는 기사를 냈다.⁵ 일제기의 수리로 인한 습기가 여전히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1955년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1903-1998)은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중수하여 원형대로 지었으나……본존불과 보살상에 이슬이 맺히고, 퍼런 물이끼가 끼게 되었다고 지적했다.⁶ 이처럼

3 강희정, 「물질의 근대, 근대의 물질: 조선 불교미술의 시멘트 복원」, 『동양미술사학』 20 (2025), pp. 133-157.

4 언론 보도는 복원 수리 직후부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가령 “천년 국보 석굴암 SOS, 조풍과 운무에 서려 조상마다 풍화작용,” 조선일보 1937년 12월 2일자 기사 같은 식이다.

5 “석굴암의 위기(危機),” 동아일보, 1948년 10월 14일. 석회는 콘크리트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은 종종 있었고, 보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석굴암의 구조나 석굴암이 매우 특별한 건축물이라는 인식은 보이지 않고, 우수한 조각이 안치된 ‘조각의 집’이며, 조각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점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서 일제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재점화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극심한 빈곤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굴암 보수는 요원한 일이었다. 그러다 1957년 9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펜클럽 제29차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19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이 경주와 석굴암을 방문하겠다고 하여 당시 경주교육청이 석굴암 불상과 보살상 등을 긴급하게 증기로 세척하게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고, 석굴암 보존·보수 문제는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세간의 관심은 조각의 보존에 집중되어 있었다. 1960년 조각가 차근호(1925-1960)는 석고로 석굴암 조각 모형을 본떠서 가져가고 싶다는 미국 스미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의 요청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냈다.⁷ 1958년부터 보수를 전제로 석굴암 예비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일어난 석굴암 본존불과 벽면의 부조상 복제 요청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석굴암이 미국에서도 주목하는 문화재였음을 알려준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석굴암 조각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조각의 훼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석고 모형의 형태로라도 보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습도 조절 실패로 인해 석굴암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한국이 독립한 뒤에도 계속 높아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럼에도 석굴암 복원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정치·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호, 보존할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를 시행에 옮길 문화재 관리·보존을 총괄할 기구,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였는데 기인한다.⁸ 결로와 누수, 외기(外氣)에 의한 본존불과 주변 조각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침내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대규모 석굴암 수리 복원 공사가 시행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겨우 5년이 지난 1958년부터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5.16 군사정변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던 이 시기에 공사가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웠다.⁹ 그럼에

6 원글은 해인사 판전(板殿)에 늦기와의 없으려는 논쟁에 대한 반론이었다. 홍종인, “고적(古蹟) 보존의 정신과 태도,” 조선일보, 1955년 12월 12일.

7 차근호, “국보 보존의 위기,”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

8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됐다가 1968년 문공부 자문기관으로 이관됐고, 1999년 문화재청 신설과 함께 상설위원회가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되어 2023년 현재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됐으며 2024년 5월 17일자로 시행 중이다.

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시행한 석굴암 보수공사는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한 국가적 사업이었으며,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석굴암의 진정한 원형을 회복하고자 했던 민족적 의지가 발현된 일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체되고 있었던 석굴 중수가 5·16혁명 정부의 단안(斷案)으로 가능했다’는 찬사를 보고서 서문에 덧붙인 것에서 문화재를 국가의 상징으로 중시하기 시작한 박정희 정부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2. 변형: 수리 내역

계속된 누수와 결로로 석굴암 주실 내부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본격적인 보수를 추진했다.¹⁰ 본격적인 보수에 앞서 1958년부터 3회, 1960년 1회, 총 4차례 예비조사단이 파견되었고, 1961년 3월에도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1958년 8월 조사단은 ‘시멘트가 석질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수층이 낡았고, 습기와 동해(凍害)를 막기 위해 전실에 지붕을 덮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¹¹ 1960년 제4차 조사단은 “온도 및 광선의 조절과 습기 및 진개(塵芥) 방지를 위주”로 공사를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1961년 1월 제1차 문화재보존위원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보수공사의 서막이 올랐다.¹² 조사단의 보고 내용에 따라 보수는 1960년 분야별로 2-3인을 선정해 석굴 보수를 위한 조사심의회를 구성하고, 공사 설계안을 비롯한 안전 세부는 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961년 9월에는 보수공사를 총괄할 사무소를 설립하고, 1964년 6월 30일자로 석굴암 본공사가 완료된다.¹³ 이 시기 보수공사의 핵심은 크게 주실 외곽에 이중으로 세운 돔, 목조 전실 신축, 전실 내부로 들어간 팔부중상의 직선 배치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 이상의 조각 훼손을 막기 위해 시작된 보수는 일제강점기에 ‘너무 많은 변형을 했다’는 판단 아래, ‘근거가 확실한

9 1960년 허정의 과도 내각이 성립되었고, 이후 장면(1899~1966)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로 전환했으며, 다음 해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10 이 시기 수리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인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에서는 1958년부터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1961년을 전면 보수에 들어간 시점으로 쓰고 있지만 조사단의 활동도 보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서는 1958년부터 같은 보수기간으로 이해한다.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1967). 또 보수의 주체를 정부라고 쓰거나 문화재위원회 결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960년에 설립된 ‘보수공사 조사심의회’ 구성이 먼저이고 뒤에 문화재위원회와 합동 회의가 이뤄졌다. 이때의 문화재위원회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문화재보존위원회로 1960년 제정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따라 1961년 구성되었다.

11 위의 책, p. 159. 여기 전실은 팔부중이 있는 공간이며 지붕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12 위의 책, p. 160.

13 5차례에 걸친 석굴 현황 조사단 일람표는 위의 책, p.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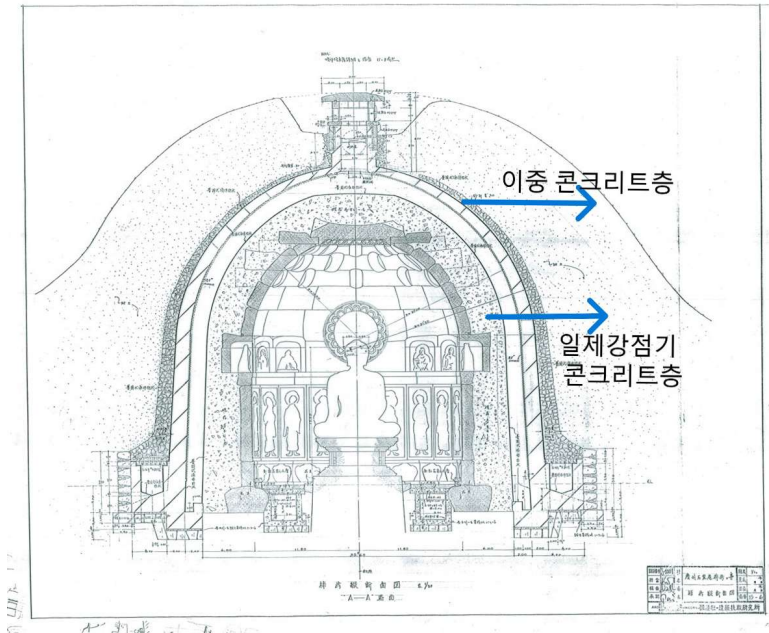


Fig. 2. 배기형, <보수중단면도> Pae Kihyŏng, *longitudinal section drawing for the Sŏkkuram restoration*, 1960 (Mokch'ŏn Kŏnch'uk Ak'aibu, <https://mokchon-kimjungsik.org/>)

부분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실제 핵심은 목조 건축으로 전실을 새로 만들어 주실 입구를 폐쇄함으로써 외기를 차단하는 데 있었다.¹⁴ 이 말은 목조 전실이 석굴암 주실의 '외기 차단'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 석굴암의 원형 복원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 이중 돔(dome) 설치

1960년 5월 구조사(構造社) 대표이자 제4차 석굴조사단 단장이던 배기형(裴基滢, 1917-1979)은 경북도지사의 의뢰로 1961년 1월 9일 석굴암 보수 설계도면 15매를 제출했다 (fig. 2). 배기형은 석굴의 천정 돔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해 일제강점기 때 씌운 콘크리트에서 얼마간 거리를 두고 추가로 콘크리트 돔을 설치하고, 전실에는 지붕과 출입문을 달 것을 주장했다.¹⁵ 2월 23일 조사심의회와 합동으로 열린 제1회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배기

14 위의 책, p. 33.

15 배기형의 설계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의 글 참조. 우동선·김태형, 앞의 논문(2019), p. 43.



Fig. 3. 일제강점기의 방수층이 드러난 모습 *Exposed waterproofing layer from the Japanese colonial-period restoration of Sökkuram* (Mun'gyobu Munhwajae-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ó, pl. 36)

형의 설계서 수정안을 시행에 옮기기로 의결했으나 이를 위한 석굴암 일대의 지반 및 지질 사전조사가 지연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같은 해 열린 제4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실(前室) 옥개(屋蓋)를 설치하면 설계 변동이 생기고, 이중 돔의 하중으로 인해 석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며, 배수구 설치에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배기형의 설계안을 폐기했다.¹⁶ 1961년 2월 새로 석굴암 보수 조사 심의위원, 공사 책임위원으로 선정된 김중업(金重業, 1922-1988)도 석굴암 보수를 위한 예비 공사와 설계를 병행했지만 1962년 해임된다. 그의 석굴암 보수계획안이 왜 부결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¹⁷ 1962년 10월 17일부터 김석기, 박만규, 황수영, 진홍섭, 홍사준 등이 전실 가구(架構) 개설에 초점을 맞춰 김중업 설계안을 재검토하고 결국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¹⁸ 김중업은 감독관에서 해임되고 김원룡이 그 자리를

16 5월 24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배기형의 안은 폐기된다.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62.

17 위의 책, p. 200. 회의 기록에는 위원들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8 위의 책, p. 169. 목조가구 개설은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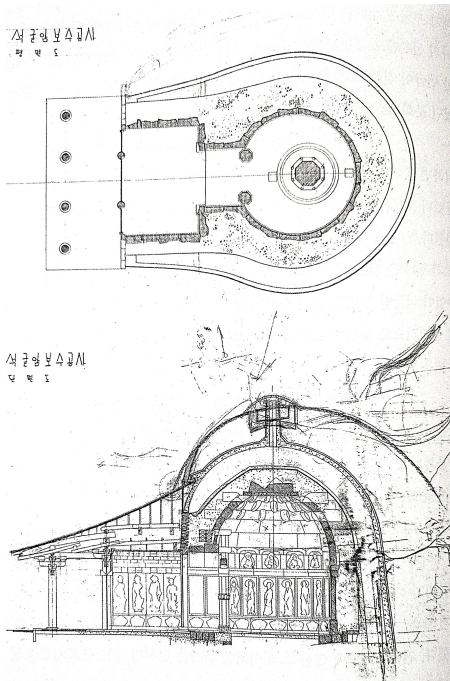


Fig. 4. 김중업, <석굴암 보수공사 평면도/단면도> Kim Chungöp, *plan and section drawings for the Sökkuram restoration project*, 1962 (Yun, Chaesin, "Chönt'ong köñch'uk üi t'amsaek kwa Sökkuram posu kyehoek," in Kim Chungöpüi yusan kwa mirae, p. 118)

대신했으며, 월성군과 김중업 간의 석굴암 설계 계약은 해지되었다.¹⁹

누구의 설계안을 채택했는지 불명확한 채로 본격적인 수리 공사가 진행되었다. 1961년 9월 16일 석굴암 주실을 덮고 있었던 봉토를 완전히 제거하고, 29일에는 일제강점기에 씌웠던 방수층을 제거했으나 콘크리트층은 없애지 못했다 (fig. 3). 콘크리트를 건어내지 못한 채로 보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일제기 때의 콘크리트층 바깥에 한 겹 더 콘크리트를 덮게 되었다. 이처럼 주실에 이중으로 반구형의 콘크리트 돔을 설치한 최종 결과물로 본다면 배기형이 처음 제안한 보수설계안을 일부 변형시킨 김중업의 설계안에 가깝다 (fig. 4). 두 사람의 계획은 유사했으나 김중업의 안도 부결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종 보수공사가 누구의 설계를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²⁰ 처음 배기형 안과 김중업의 설계안이 달라진 점은 이중 돔의 구조를 보완해 반원형 지붕만이 아니라 외부 벽체 전체를 감싸는 식으로 확대하고, 전실

상부에 목조 가구를 덮으며, 출입구는 증축하는 방향이었다는 것이다.²¹ 실제 진행한 보수공사 역시 일제강점기에 씌운 콘크리트층 외곽으로 약 1미터의 공간을 두고 주실 전체에 종 모양의 콘크리트 돔을 덧씌우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설계안 자체는 부결됐지만 결과는 두 사람의 계획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fig. 5).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네스코(UNESCO)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 알려진 해롤드 플렌더리스

19 위의 책, p. 170. 주석에 김중업이 설계안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않아서 위약이라고 했다.

20 도면들은 목천건축아카이브(<https://mokchon-kimjungsik.org/project/16>)에 공개되어 있다.

21 우동선·김태형, 앞의 논문(2021),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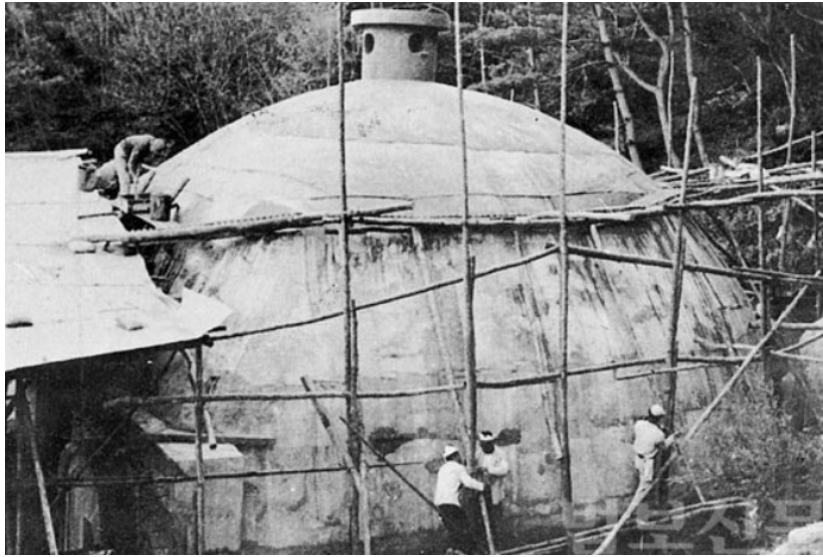


Fig. 5. 이중 돔 설치 장면 *Installation of the double-dome structure during restoration* (Mun'gyobu Munhwajae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ö, pl. 67)

(Harold J. Plenderleith)의 등장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플렌더리스는 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미술 보존 전문가이자 고고학자로 국제문화재보존 및 복원연구센터(ICCRROM) 초대 소장을 맡고 있었다.²² 그는 1960년 당시 민주당 정부가 요청하여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인물이라고 1961년 7월 기사에 처음 나온다. 그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본격적인 석굴암 공사가 더 늦어졌을 것이라는 언급을 보면 유네스코의 권위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²³ 1960년 출범한 허정 내각 문교부 장관이던 이병도가 ‘(석굴암 보수는) 우방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배기형이나 김중업의 설계·계획보다 ‘외국인 전문가’인 플렌더리스의 제안이 공사의 진척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²⁴ 이는 당시 석굴암 보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람들이 유사한 건축과 조각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22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소장을 하면서 1950년에는 자신이 설립에 기여한 국제보존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이사를 역임했다. ICCROM archives, 2025년 8월 7일 검색.
https://web.archive.org/web/20080829213607/http://www.iccrom.org/eng/00about_en/00_03history_en/directors_en.shtml.

23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p. 29. 1961년 플렌더리스의 의견서는 한 번 거부된 후, 공사단의 방침이 옳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자신의 건의는 종결한다고 하였다.

24 차근호,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자.



Fig. 6. 완공 단계의 목조 전실 *Wooden antechamber at the final stage of construction* (Mun'gyobu Munhwajaea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ŏ, pl. 83).

2) 목조건물 건설과 전실의 확장

1962년 11월 23일에 열린 제17차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와 설계소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석굴암 보수공사의 큰 틀을 잡았다. 첫째, 주실 외부에 이중 돔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봉토를 하되 주변 지형에 맞추어 외형을 잡는다. 둘째, 봉토 끝부분은 전실 앞 석상(팔부중상) 앞에서 끝이 되게 구성하고, 지형에 맞게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다. 이 두 가지는 이중 돔 외에는 일제강점기의 보수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전과 달리 전실 평면을 넓히기 위해 당시까지 굴절형으로 꺾여 있었던 팔부중을 펴서 직선형으로 맞춘다는 것이었다.²⁵ “ㄴ”자로 꺾였던 팔부중을 펴서 주실 앞의 공간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위에 처마와 팔작(八作) 지붕을 얹고 내부는 연등 천정으로, 바닥에 전돌을 깔 목조건물을 신축한다고 뜻을 박았다(fig. 6).

팔부중이 꺾여 있었던 주실 외부 공간에 목조 전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와 오사카 로쿠무라(大阪六村)가 쓴 『취미의 경주(趣味之慶州)』

25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70.



Fig. 7. 보수 이전 석굴암 상부 *Upper structure of Sökkuram prior to restoration*, photograph by Tori Ryujo, photographic plate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museum.go.kr/dryplate/>)

에서 근거를 찾았다.²⁶ 『취미의 경주』에 “토석이 붕괴하여 입구를 막았다”고 한 부분을 『불국사고금역대기』에 나오는 근대 이전의 마지막 후원자 조순상(趙巡相)이 중수를 했던 목조가구가 20세기 초 붕괴됐다는 얘기라고 해석한 것이다.²⁷ 당시 보수위원회는 조순상이 전설 목조건물에 기와를 얹는 와즙(瓦葺)을 했고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추정했다.²⁸ 그러나 토석이 어디서 붕괴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목조가구가 무너졌다는 말도 책에는 없다. 이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목조가구를 봤다는 2명의 노인 증언도 그대로 따르기 매우 어렵다. 목조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약간의 철물과 다량의 기와 역시 일제강점기에 찍은 주실 천정부에 기와로 덮은 것을 보면 목조건물의 근거가 될 수 없다(fig. 7).

정선(鄭勳)의 <골굴석굴도> 역시 목조 전설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골굴과

26 위의 책, pp. 10-11.

27 위의 책, p. 11.

28 위의 책, p. 13. 주 7)에 목조 지붕이 있었다는 경주 쾌동리, 양북면 범곡리 노인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그 세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양 벽에 4구씩 배치하고 그 바깥에 목조 가구를 갖춘 전실을 지음으로써 박정희 시대의 석굴암 보수공사는 일단락되었다(fig. 9). 남천우는 굴절형이던 팔부중상을 펼쳐서 직선형으로 전개한 것은 전실 목조건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fig. 10).²⁹ 마지막의 팔부중상이 꺾여 있으면 나머지 공간에 새로 목조 전실을 짓기에는 공간이 옹색했을 것이고, 충분히 안정감 있게 목조 건축을 앉히려면 4번째 팔부중상이 펼쳐진 상태가 건축에 훨씬 수월하다(fig. 11).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팔부중상의 규격이 나머지 판석과 다르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⁰ 마지막 팔부중의 규격이 다른 패널과 다르다면 8구의 팔부중상은 처음부터 직선상에 일렬로 배치할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안쪽에 세워진 양 벽 2구씩 4구의 팔부중은 신라 중대 석탑 기단부에 있는 팔부중 부조와 양식적으로 유사하며, 도상적 특징도 공유하고 있어서 이들이 처음부터 한 세트에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뒷부분의 4구는 조각 수법과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8구가 대략 세 시기에 걸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아마도 지진대가 지나가는 경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창건 이후 생긴 자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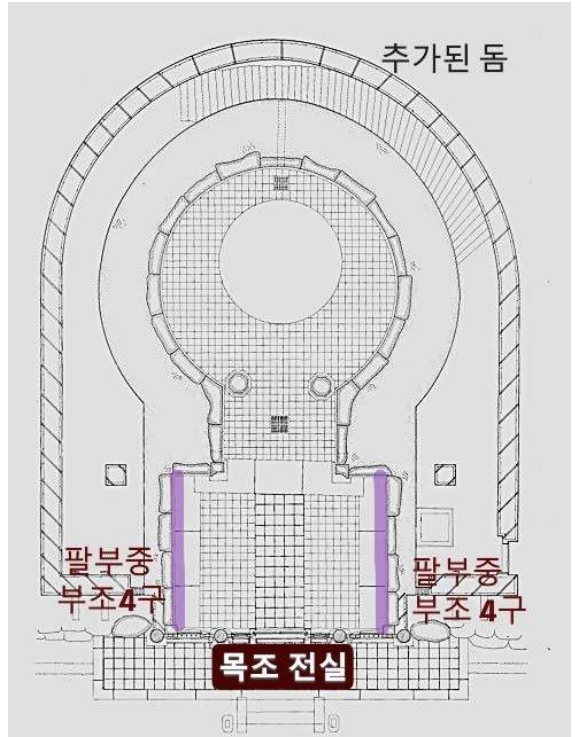


Fig. 9. 수리 후의 도면 Plan drawing after restoration (Mun'gyobu Munhwajae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ö, drawing pl. 6)

29 남천우, 「석굴암에서 망각되어 있는 고도의 신라과학—복원평면, 방위, 채광의 방법 및 봉토 유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41 (1969), p. 82, 주 4) 참조.
30 다른 팔부중상들의 판석 폭이 1.07m 내외인 데 비해 마지막 상 2구는 0.96m라고 한다. 팔부중상의 신장 역시 10-30cm 가량 차이가 난다. 강현, 「건축고고학적 측면에서의 석굴암 원형 재검토」,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22), pp. 49-51.



Fig. 10. 일제강점기 꺾인 상태의 팔부중 상 (향우측) *Eight Guardians figure in a bent position (right side)*, photograp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museum.go.kr/dryplate/>)

Fig. 11. 수리 공사 후 펼쳐진 우측 팔부중상 *Right-side Eight Guardians figure after restoration* (Mun'gyobu Munhwajae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ö, pl.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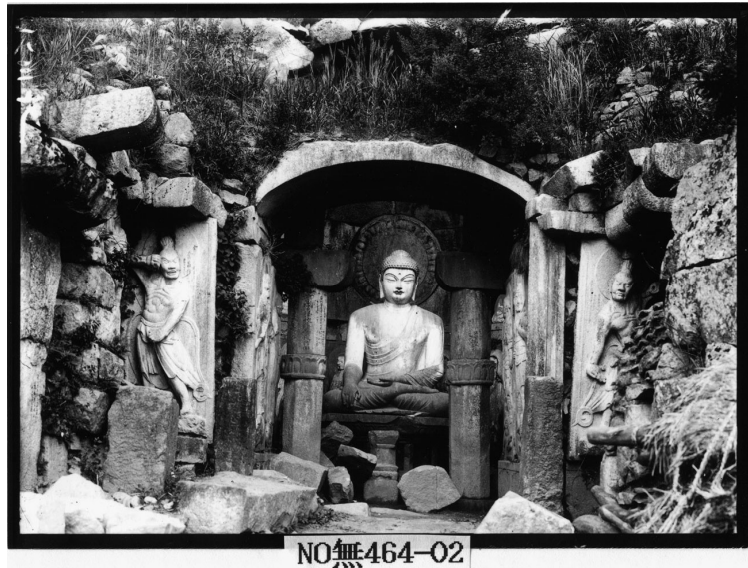


Fig. 12. 천정이 무너진 상태의 석굴암, 1912년 이전 *Collapsed ceiling of Sökkuram prior to 1912*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museum.go.kr/dryplate/>)

해로 인해 석재가 무너지면서 앞쪽에 세웠던 팔부중 부조가 도괴되고 이를 중수해 다시 세우면서 조각의 양식상 편차가 극명해졌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복원 수리 이전 사진에 주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뚫려 있었던 모습에서 짐작이 된다(fig. 12). 창건 당시에는 석굴 주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마지막 팔부중상을 굴절형으로 배치하여 외부와 단절된 ‘불국(佛國)’ 주실로 들어가는 느낌을 줬을 것이다. 굴절형 배치는 직선형 배치보다 돌과 토사의 쓸림과 유실을 막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본존불이 있는 주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을수록 특정한 구역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참배객들에게 주기 쉽다는 점도 지붕이 없는 공간에 팔부중을 굴절형으로 배치한 형태가 창건 당시 원형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Ⅲ. 변형으로 인한 인식의 왜곡

1. 석굴사원의 종착지라는 석굴 패러다임

김대성이 처음 석굴암을 창건했을 때는 석불사(石佛寺)라고 불렀지만 이후 문헌에는 같은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 전기 관찬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1454년) 등에 석굴암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17세기 들어서야 문인 정시한(丁時翰)이 쓴 여행기 『산중일기(山中日記)』에 “석굴(에 올랐다(上石窟)). 불국·석굴·골굴 등을 보러 가고자……”로 서술한 대목이 나온다. 이후 선비들의 국토 여행이 널리 유행하면서 문집이나 여행기에 석굴이 언급되지만 석불사라는 호칭도, 석굴암도 보이지 않는다. 1670년경 토함산에 오른 이채(李埰)도, 1737년경의 임필대(任必大) 모두 ‘석굴’이라고 썼을 뿐이다.³¹ 석굴암이라는 호칭은 숙종 29년(1703)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나온다. 불국사 승려 종황(從恍)이 석굴암을 중창하고 굴(로 향하는) 계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의 ‘석굴암’ 표현이다.³² 하지만 문맥상 그가 중창했다는 석굴암은 석굴이 아니라 암자로 보인다. 바로 뒤에 ‘굴계를 쌓았다’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창건 당시 석불사라 불렸고, 조선시대에 석굴이라고 했다면 전근대 석굴암은 처음부터 석굴사원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도 아니고, 석굴사원으로 기능하지도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른 석굴사원의 종착역이 석굴암이라는 인식은 석굴사원에 주목하고 이를 중시한 일본인 학자들의 패러다임이 확대된 것이다.³³

신라 사람들이 인도식 사원을 불교사원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이를 모방해 불국토(佛國土) 신라에 재현하려는 열망이 컸음은 황룡사 장육존상이나 허황옥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석굴사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³⁴ 평면이 원형인 불당(佛堂) 건축물 모형이 없이 석굴암과 같이 반구형 천정을 갖춘 원형 불당을 세우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존 연구처럼 석굴 평면의 유사성을 따져 평면이 ‘원형인가, 방형인가’에 기초해 인도 석굴사원에서 석굴암의 기원을 찾는 일은 건축의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인도 석굴사원을 모델 삼아 석굴암의 원형 주실이 건설됐다면 모델이 된 인도의 성소(聖所)는 원형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원형당(圓形堂)은 인도 불교 사원을 대표하는 형식도 아니고, 결코 흔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인도 석굴사원에서 석굴암의 원형을 구하려는 오래 지속된 노력은 뿌리 깊은 ‘석굴 패러다임’

31 정시한, 신대현 역, 『산중일기』(해안, 2005), p. 419-421. “欲觀佛國·石窟·骨窟等處”; 考古美術同人會 刊, 『慶州古蹟詩文錄』(考古美術同人, 1962), p. 18 참조.

32 『불국사고금창기』. “康熙四十二年癸未, 從悅重搆石窟庵, 又築窟階”

33 강희정, 「석굴 패러다임과 석굴암」, 『미술사학』 22 (2008), pp. 163-194.

34 김혜원, 「석굴암 원형당 형식의 외래적 요소에 대하여」,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22), p. 127.



Fig. 13. 집수정, 전남 광양 마로산성 Drainage basin, Marosan Mountain Fortress, Kwangyang, Chollanam-do (Daum News, <https://v.daum.net/v/20051012214622882>)

때문이다.³⁵ 석굴 패러다임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불교문화 인도 기원설을 충실히 따르거나, 인도 기원론이 모든 불교문화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온 역사적 궤적에서 비롯되었다. 인도, 중앙아시아의 석굴사원에서 기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석탑, 집수정(集水井) 등 신라의 건축 전통에 기반을 두고, 새로 유입된 외래 공법과 기술을 더해 원형 주실 건설이 가능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fig. 13).

2. 방형 전실과 원형 주실의 이중 구조라는 인식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실이라 일컫는 원형의 공간은 주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적이 없고, 단지 ‘굴’이라고 쓰였다.³⁶ 전실 역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형 전실이 아니라 석굴 앞의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廣義)의 뜻으로 쓰였다.³⁷ 우리가 알고 있는 ‘방형 전실과 원형 주실의 석굴암’이라는 생각은 60년대 수리 이후 만들어진 아이디어이다. 이때

35 강희정, 앞의 논문(2008), pp. 163-194.

36 보고서에는 주실이라는 말이 4회 나오는데, 1963년 8월 10일자 회의록에서 처음 나오며, 전실과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라 “주실과 이중 돔 사이에”, “주실 및 비도(扉道)”와 같은 식으로 쓰였다.

37 전실은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33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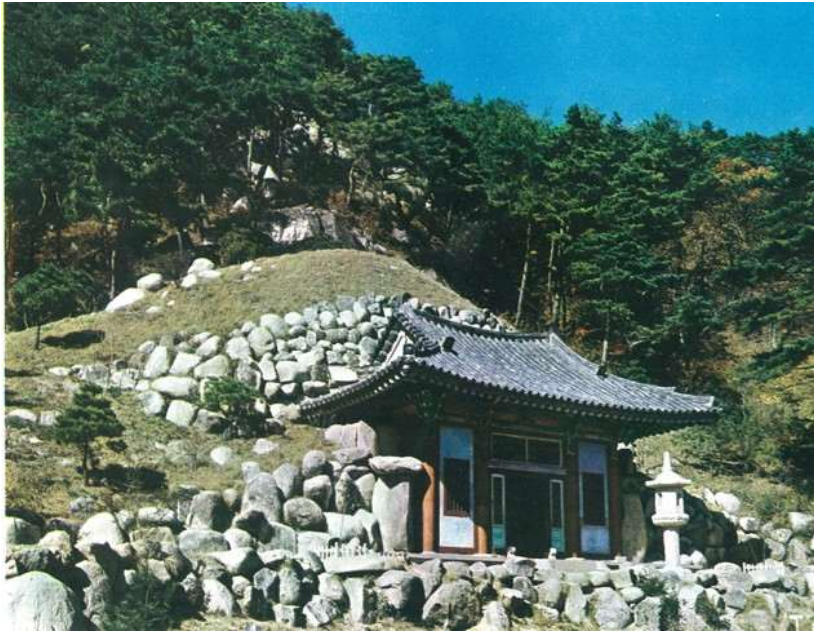


Fig. 14. 보수공사를 마친 석굴암 Sökkuram after completion of the restoration project, 1964 (Mun'gyobu Munhwajaegwalliguk, Sökkuram suri kongsa pogosö, inside cover)

의 보수공사 이후, 석굴암이 창건 당시부터 지붕이 있는 방형 전실을 갖춘 석굴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된 것이다(fig. 14). 이는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그에 비견될만한 다른 유적도 없다.

앞에서 임필대가 ‘목조건물의 형을 갖추지 않고, 돌을 쌓아 굴을 이루었다(則無棟宇之制而疊石而成窟)’라고 쓴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우지제’는 용마루를 갖춘 건축물의 형태를 지칭하므로 ‘동우지제’가 없다는 말은 목조 건축이 아니란 뜻이다. 석굴 앞에 목조 가구를 갖춘 전실이 있었다면 임필대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덕표(李德標) 역시 1704년 9월 17일 석굴암에 오른 경험을 『우와집(迂窩集)』 「수승록(搜勝錄)」에 남겼다. 그는 ‘돌을 다듬어 쌓아서 굴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흙으로 지은 집처럼 생겼다(築鍊石以爲窟狀若土宇而)’고 했다.³⁸ 흙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에 둥글게 짚을 엮은 움집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실 상부를 토분(土墳)처럼 흙으로 덮고, 바로 기와를 올릴 수는

38 趙喆濟, 「慶州文集 解題 (6)」, 『慶州文化』 6 (2000), pp. 317-328.

없으므로 주실 상부에 목조건물 같은 가구조를 만든 뒤에 기와를 올린 모습이 일제기 때의 사진일 것이다. 석굴암 주위에서 10여 종류의 기와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오랜 세월 동안 석굴암 주실 상부에 기와가 쓰였던 것은 분명하다.³⁹

전실에 대한 관념도 없었고, 전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도 없었다면 석굴암은 현재의 주실만 있는 석굴 정도였을 것이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전실을 거론한 사람이 없고, 전실에 해당하는 특정한 공간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때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로 원형 주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방형 전실과 원형 주실로 이뤄진, 전방후원(前方後圓) 형의, 말발굽 같은 모습의 석굴암이라는 우리 생각은 1960년대 보수공사를 거친 후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다. 전실 위치에 공간은 있었지만 ‘실(室)’이라고 부를 만한 지붕과 벽을 제대로 갖춘 방 형태는 아니었고, 현관 정도 구실을 하는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 이전 기록에 한결 같이 석굴로 거론되며, 전실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전실 가구를 올릴 만한 초석이나 다른 유물,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 추정이다.⁴⁰ 조선시대 이래 전실이 없었다고 해서 창건 당시에도 아예 전실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토함산 중턱이라는 위치, 석굴암의 규모로 미루어 구조적인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공간을 추가하거나 없애는 일이 있었다면 적어도 1281년경 쓰인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었어야 한다. 구조 관련 기록이 없고, 조선 전기 문헌에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석굴암은 애초에 원형 평면의 불당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시대의 수리 공사 이전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만 갖춘 단일 구조로, 본존불을 안치한 인도식 향당(香堂)을 의식하고 건설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향당은 정각(正覺)을 이룬 석가모니를 모신 성소라는 의미로 쓰였다. 석굴암 본존불이 석가모니 성도상(成道像)임을 생각하면 원형 평면의 주실이야말로 향당에 걸맞은 공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발견된 명문을 통해 실존했던 인물 붓다와 제자인 승려들이 함께하는 사원 공간으로 향당의 개념이 확대됐다는 견해가 주목된다.⁴¹ 석굴암 벽면의 석가모니 10대 제자 부조는 불타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자리하는 공간으로 원형 주실이 기획되었음을 시사한다(fig. 15). 다른 신

39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2, 제1장 발굴 조사 참조.

40 목조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 초석 자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현, 앞의 논문, p. 48.

41 김혜원은 앞의 글에서 그레고리 쇼펜(Gregory Schopen)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성소와 승원이 결합된 사원의 예로 아잔타 제16굴과 바그 제1굴 등을 들었다. 김혜원, 앞의 글, pp. 134-135.



Fig. 15. 본존불과 10대 제자, *Main Buddha and the Ten Great Disciples*, photograph by Han Sökhong, 198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www.nrich.go.kr>)

라 불교사원과 탑에 10대 제자 조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석굴암이 의미가 확장된 고유의 성소, 향당으로 조성됐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향당이 평면이 원형인 불당으로 건립될 이유는 없다.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실존하는 공간으로서의 향당을 토함산에 건설하고자 했다면 실제(實在)하는 존재로서의 석가모니를 예경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우요이다.⁴² 우요삼잡(右繞三匝)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일어난 상서로운 일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제26권에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루기 전, “세간에 모든 길상한 일이 사방에서 구름과 비 오듯 모여와서 각각 보살의 오른쪽에서 에워싸고 세 번을 돌고 나서 보살을 따라갔다.”고 명시했다.⁴³ 우요로써 석가모니를 예경하기 위해 지은 향당이라면 굳이

42 강희정, 「禮敬과 善業을 위하여: 繞匝을 위한 塔과 像」,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pp. 142-166.

전실을 건설할 이유가 없고, 우요에 적합한 원형 주실만으로 충분하다.

3. 호국 이념이 개입된 왕실 원찰(願刹) 설의 확대 재생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포함한 각종 웹사이트, 개설서, 대중서, 관광안내서 등에는 석굴암 본존불이 동해를 바라본다거나 대왕암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석굴암이 호국불교의 산물이고 신라 왕실의 원찰이라는 주장은 고 황수영(黃壽永) 교수가 처음 제기한 이래 보편화된 생각이다.⁴⁴ 석굴암이 동해구(東海口), 대왕암(大王岩)을 향해 건립된 호국 사찰이라는 생각은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으며, 고유섭(高裕燮)에서 시작되어 황수영에서 구체화되었다. 토함산은 원래 탈해(脫解) 신전이 있던 곳이라 신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소이며, 왜적을 막기 위해 대왕암을 바라보는 위치에 건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방향의 역설에 불과하다. 동쪽에는 동해가 있고, 경주에서 가까운 감포 바다에는 대왕암이 있다. 동해를 향해 석굴암을 지은 것이 호국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하면 신라 어디에서도 동향으로 위치한 사원과 불상은 같은 기원을 담았다고 보아야 한다. 석굴암은 장엄하고 뛰어난 명작이기 때문에 석굴암만 왕실 원찰이자 호국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라 때 동해로 침략하는 왜구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석가모니가 동트는 방향을 향하고 정각을 얻었다는 불전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아야 한다.

석굴암이 동해를 향한다는 데 주목하여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킨 것은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를 비롯한 일본인들이지만 이를 호국 사찰로 확대한 사람은 고유섭에서 황수영, 정영호로 이어진다.⁴⁵ 석굴암이 자리한 토함산 중턱의 지

43 한자는 다르지만 오른쪽으로 돈다는 내용은 같다. 『불본행집경』 권제26, “又世間中所有一切吉祥之事 皆從四方雲雨而來 各在菩薩右邊圍遶經三市已隨菩薩行” 동국대학교 불교기독교유산아카이브, 2025년 9월 20일 검색, https://kabc.dongguk.edu/m/content/view?itemId=ABC_IT&cate=bookName&depth=3&upPath=F&dataId=ABC_IT_K0802_T_026.

44 일제기의 여행기, 기사 등에 유사한 서술이 나온다. 이를 학술적으로 명시하고 인과가 있는 계획적 배치라 한 것은 황수영, 「窟庵本尊 阿彌陀如來坐像小考-新羅 東海口遺蹟과 관련하여」, 『考古美術』136·137 (1978), pp. 92~95.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3-7 서편 제2절 창건에서 먼저 이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발전시킨 논문이 『고고미술』에 실린 것이다. 그 외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15-3 (1992), pp. 53-66.

45 세키노는 총독부에 낸 보고서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고 썼으며 대왕암과의 관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柳宗悅, 「石佛寺の彫刻に就いて」, 『藝術』 2-5 (1919), pp. 91-121(柳宗悅, 『朝鮮とその藝術 柳宗悅選集 4』(日本民藝協會, 1972) 제수록); 강희정, 「야나기 무네요시의 석굴암 인식-20세기초 일본 지식인에 의한 최초의 석굴암론-」, 『진단학보』

세에 따라 편의상 현재의 위치에 조영됐을 뿐이라는 일본인의 글도 있지만 대왕암이 있는 동해구를 향해 의도적으로 동동남향(東東南向)을 선택한 것이라는 황수영 교수의 주장이 현재는 보편화됐다. 석굴암 주실의 방향이 동남향으로 몇 도에 해당하는지, 이 각도가 일출 각도와 맞는지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본존불이 정확히 동짓날 해 뜨는 방향에 안치되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간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1,200여 년 전의 일출 방향과 지금의 일출 방향이 같을 수도 없다.⁴⁶ 대왕암과 한 축을 이루도록 석굴암이 건설된 이유는 문무왕의 산골터인 대왕암이 신라의 성지였기 때문이며, 이는 신라인의 적극적인 호국 의사로 선택된 기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천우 교수는 석굴암 정면과 대왕암 및 동해구는 일직선상에서 벗어나 있고, 석굴암이 자리한 토함산 하단 능선에 가리워 동해구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⁴⁷ 석굴암의 방향과 위치가 호국 이념으로 인해 선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대왕암을 하나의 상징망으로 삼아 불국사, 감은사, 무장사, 석굴암 등을 호국 원당(願堂)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인식들은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다. 냉전시대에 강조한 호국 이념이 문화유산에 투사된 것이다. 박정희는 1963년 10월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세워 군정을 실시했다. 그는 석굴암 수리가 진행되던 1962년과 1963년 두 차례 석굴암을 방문했을 뿐이며, 수리공사 세부에 일일이 관여할 정도의 여유와 식견은 아직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fig. 16).⁴⁸ 그가 전통과 민족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 것은 남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잘한 분쟁이 벌어지던 1970년대이다. 석굴암 보수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으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박정희에게 ‘호국사찰 석굴암’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부는 냉전기의 위기의식에 기대어 ‘민족정신과 호국 이념을 구현한 석굴암’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적극 개입했다.⁴⁹ 특히 개편 초·중등 교과서에 석굴암과 불국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석굴암은 신라만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수호할 수 있는 호국 문화재로 인식시켰다.

110 (2010), pp. 1-23.

46 석굴이 대왕암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가, 동짓날 해 뜨는 방향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골몰했다. 최영성, 「석굴암 석굴重修上棟文(1891) 연구: 譯註를 곁하여」, 『보조사상』 47 (2017), p. 5.

47 남천우, 앞의 논문, p. 85.

48 “석굴암 등 시찰,” 조선일보, 1962년 3월 31일; 제각기 공을 앞세워, 『경향신문』, 1963년 10월 18일.

49 강희정, 「명작의 탄생: 20세기 석굴암의 신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12 (2013), pp. 92-116.



Fig. 16. 공사 중인 석굴암을 방문한 대통령 박정희 *President Pak Chŏnghŭi visiting the Sökkuram restoration site, ca. 1963* (The Archiv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Buddhist Records, <https://kabc.dongguk.edu/>)

IV. 맺음말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후에도 석굴 내 누수와 결로는 지속되었다. 신영훈은 자신이 참여한 이때의 보수공사에 대해 “석굴암은 관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법당”이며, “토함산의 기상을 고려하면 풍화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조 전실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⁵⁰ 불교 의례와 신앙을 위한 법당인 석굴암 조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목조 전실 건설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목조 전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될지언정 원형 변형 여부와 그 정당성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목조 전실과 지붕이 김대성 창건 당시 석굴암의 원형에 부합되는지, 혹은 원형을 왜곡하는 일인지는 이미 논외였던 것이다. 반드시 창건 당시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복원의 핵심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석굴암의 올바른 보존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50 신영훈, 「석굴암 보수는 개악이 아니다」, 『신동아』 1969. 7.

이 시기 석굴암 보수와 복원 공사는 현대와 전근대적인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재 관리와 보수의 선례가 되었다. 당시 공사의 기준이 창건 당시의 원형 복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굴암 보수는 현대적 의미에서 “기억의 장소”로서의 문화유산 복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보수를 주도한 사람들의 기억은 종교 유산으로서 참배객들이 몰려드는 신앙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불국사 복원까지 밀어붙인 박정희 정부의 기억은 일제강점기 이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던 관광 명소로서의 석굴암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변형된 석굴암은 민족정기를 대표하는 호국의 상징이 되었다. 박정희는 불국사를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불국사, 석굴암, 대왕암은 민족의 기억을 호국으로 수렴시키는 지식 담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 주제어(keywords)_석굴암(Sökkuram, Grotto), 불국사(Pulguksa Temple), 박정희(Pak Chöng-hüi), 복원(Restoration), 국가주의(Nationalism), 문화재(Cultural heritage)

■ 투고일 2026년 1월 19일 | 심사개시일 2026년 1월 26일 |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13일 ■

참고문헌

1. 사료

『불본행집경』

2. 한국어 문헌

- 강현, 「건축고고학적 측면에서의 석굴암 원형 재검토」,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22.
- 강희정, 「석굴' 패러다임과 석굴암」, 『미술사학』 22, 2008.
- _____, 「야나기 무넨요시의 석굴암 인식—20세기초 일본 지식인에 의한 최초의 석굴암론—」, 『진단학보』 110, 2010.
- _____, 「禮敬과 善業을 위하여: 繞匝을 위한 塔과 像」,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 _____, 「명작의 탄생: 20세기 석굴암의 신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12, 2013.
- _____, 「물질의 근대, 근대의 물질: 조선 불교미술의 시멘트 복원」, 『동양미술사학』 20, 2025.
- 考古美術同人會 刊, 『慶州古蹟詩文錄』, 古美術同人, 1962.
- 김혜원, 「석굴암 원형당 형식의 외래적 요소에 대하여」,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22.
- 남천우, 「석굴암에서 망각되어 있는 고도의 신라과학—복원평면, 방위, 채광의 방법 및 봉토 유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41, 1969.
-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1967.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발표자료집』, 2022.
- 신영훈, 「석굴암 보수는 개악이 아니다」, 『신동아』, 1969. 7.
- 우동선·김태형, 「배기형의 「경주 석굴암 보수공사 설계도」(1961)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8-2, 2019.
- _____, 「김중업의 경주 석굴암 보수공사 설계(1961-1962)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30-4, 2021.
- 윤재신, 「석굴암, 세 번의 수리 공사와 세 개의 공간 개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8, 2019.
- _____, 「석굴암의 들은 말한다: 석불사 석굴의 건축 평면과 벽면 설계」, 『건축역사연구』 29-1, 2020.
- _____, 「석굴암의 신화 분석과 건축공간 복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2-4, 2023.
- _____, 「전통건축의 탐색과 석굴암 보수계획」, 『김중업, 그 유산과 미래』,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023.
- 이정아, 「1960년대 보존원칙의 수립과 변화의 연구—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에서 원상, 원형, 복원 용어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32-2, 2023.
- 정시한, 신대현 역, 『산중일기』, 혜안, 2005.
-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15-3, 1992.
- 趙喆濟, 「慶州文集 解題 (6)」, 『慶州文化』 6, 2000.
- 최영성, 「석굴암 석굴 重修上棟文(1891) 연구: 譯註를 곁하여」, 『보조사상』 47, 2017.
- 黃壽永, 「石窟庵本尊 阿彌陀如來坐像小考—新羅 東海口遺蹟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36·137, 1978.

3. 동양어 문헌

柳宗悅, 「石佛寺の彫刻に就いて」, 『藝術』 2-5, 1919. 柳宗悅, 『朝鮮とその藝術 柳宗悅 選集 4』 (日本民藝協會, 1972) 재수록.

4. 데이터베이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https://www.nrich.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
목천건축아카이브, <https://mokchon-kimjungsik.org/project/16>.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ICCROM archives, <https://web.archive.org>

“천년 국보 석굴암 SOS, 조풍과 운무에 서려 조상마다 풍화작용,” 조선일보, 1937년 12월 2일.

“석굴암의 위기(危機),” 동아일보, 1948년 10월 14일.

“고적(古蹟) 보존의 정신과 태도,” 조선일보, 1955년 12월 12일.

“국보 보존의 위기,”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

“석굴암 등 시찰,” 조선일보, 1962년 3월 31일.

“제작기 공을 앞세워,” 경향신문, 1963년 10월 18일.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Pulbon haengjip kyōng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Ch'ölche. “Kyōngju munjip hae'je (6).” *Kyōngju Munhwa* 6 (2000): 317-328.

Ch'oe, Yōngsōng. “Sōkkuram sōkkul chungsubangmund (1891) yōn'gu.” *Pojo Sasang* 47 (2017): 319-366.

Chōng, Sihan. *Sanjung ilgi*. Translated by Sin Taehyōn. Seoul: Hyeon, 2005.

Chōng, Yōngho. “Sōkkul ch'anggōn kwa Tonghaegu Silla yujōk kwa ūi kwangye.” *Chōngsin Munhwa*

- Yŏn'gu* 15, no. 3 (1992): 53-66.
- Hwang, Suyŏng. "Sŏkkulam ponjon Amit'a yŏrae chwasang sogo." *Kogo Misul* 136-137 (1978): 92-95.
- Kang, Heejung. "Sŏkkul p'aerŏdaim kwa Sŏkkuram." *Misulsahak* 22 (2008): 163-194.
- _____. "Yanagi Muneyoshi ūi Sŏkkuram insik: 20-segi ch'ŏ Ilbon chisigin e ūihan choech'o ūi Sŏkkuram non." *Chindan Hakpo* 110 (2010): 191-215.
- _____. "Yegyŏng kwa sŏnŏp ūl wihayŏ: Yŏupchap ūl wihan t'ap kwa sang." *Misulsa wa sigakkmunhwa* 10 (2011): 142-165.
- _____. "Myŏngjak ūi t'ansaeng: 20-segi Sŏkkuram ūi sinhwa." *Misulsa wa sigakkmunhwa* 12 (2013): 92-115.
- _____. "Mulchil ūi kŭndae, kŭndae ūi mulchil: Chosŏn pulgyo misul ūi siment'ŭ pokwŏn." *Tongyang Misulsahak* 20 (2025): 133-157.
- Kang, Hyŏn. "Kŏnch'uk kogohakchŏk ch'ŭmyŏn esŏ ūi Sŏkkuram wŏnhyŏng chaegŏmt'o." In *Sŏkkuram sŏkkul wŏnhyŏng yŏn'gu haksultaehoe charyojip*. 2022.
- Kim, Hyewŏn. "Sŏkkuram wŏnhyŏngdang hyŏngsik ūi oeraejŏk yoso e taehayŏ." In *Sŏkkuram sŏkkul wŏnhyŏng yŏn'gu haksultaehoe charyojip*. 2022.
- Kyŏngju Munhwawŏn, ed. *Kyŏngju kojŏk simunrok*. Sŏul: Kogomisultonginhoe, 1962.
- Mun'gyobu Munhwajae Kwalliguk. *Sŏkkuram suri kongsa pogosŏ*. Sŏul: Mun'gyobu Munhwajae Kwalliguk, 1967.
- Nam, Ch'ŏnu. "Sŏkkuram esŏ manggak toeŏ itnŭn kodo ūi Silla kwahak." *Chindan Hakpo* 141 (1969): 73-104.
- Silla Munhwa Yusan Yŏn'guwŏn. *Sŏkkuram sŏkkul wŏnhyŏng yŏn'gu palp'yo charyojip*. 2022.
- Sin, Yŏnghun. "Sŏkkuram posu nŭn kaegak i anida." *Sindonga*, July, 1969.
- U, Tongsoŏn, and Kim, T'aehyŏng. "Paegihyŏng ūi 'Kyŏngju Sŏkkuram posu kongsa sŏlgye-do' (1961) e kwanhan koch'al." *Kŏnch'uk Yŏksa Yŏn'gu* 28, no. 2 (2019): 53-64.
- _____. "Kim Chungŏp ūi Kyŏngju Sŏkkuram posu kongsa sŏlgye (1961-1962) e kwanhan koch'al." *Kŏnch'uk Yŏksa Yŏn'gu* 30, no. 4 (2021): 41-52.
- Yi, Chŏnga. "1960-nyŏndae pojŏn wŏnch'ik ūi surip kwa pyŏnhwa e kwanhan yŏn'gu." *Kŏnch'uk Yŏksa Yŏn'gu* 32, no. 2 (2023): 7-20.
- Yun, Chaesin. "Sŏkkuram, se pŏn ūi suri kongsa wa se kae ūi konggan kaenyŏm." *Taehan Kŏnch'ukhakhoe Nonmunjip* 35, no. 8 (2019): 89-100.
- _____. "Sŏkkuram ūi tol ūn malhanda." *Kŏnch'uk Yŏksa Yŏn'gu* 29, no. 1 (2020): 21-37.
- _____. "Sŏkkuram ūi sinhwa punsŏk kwa kŏnch'uk konggan pokwŏn e kwanhan yŏn'gu." *Kŏnch'uk Yŏksa Yŏn'gu* 32, no. 4 (2023): 7-18.
- _____. "Chŏnt'ong kŏnch'uk ūi t'amsaek kwa Sŏkkuram posu kyehoek." In Kim Chungŏp, kŭ yusan kwa mirae, edited by *Kim Chung-ŏp Kŏnch'uk Pangmulgwan*, 106-125. Anyang: Anyang Munhwa Yesul Chaedan, 2023.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Yanagi, Muneyoshi. "Sekibutsuji no chōkoku ni tsuite." *Geijutsu* 2, no. 5 (1919): 91-121. Reprinted in Yanagi Muneyoshi. *Chōsen to sono geijutsu, Yanagi Muneyoshi senshū 4*. Tok'yo: Nihon Mingei Kyōkai, 1972.

4. Database

Chosŏn wangjo sillok,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Han'guk'ang t'ijit'ŏl ak'aibū. <http://yoksa.aks.ac.kr/main.jsp>

ICCROM Archives. <https://web.archive.org>

Kungnip Munhwa Yusan Yŏn'guwŏ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www.nrich.go.kr>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museum.go.kr>

Mokch'ŏn Kŏnch'uk Ak'aibu. <https://mokchon-kimjungsik.org>

Pulgyo Kirok Munhwa Yusan Ak'aibu (The Archiv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Buddhist Records). <https://kabc.dongguk.edu>

"Ch'ŏnnyŏn kukpo Sŏkkuram SOS, chop'ung kwa unmu e sŏryŏ chogang mada p'unghwajagyong." *Chosŏn Ilbo*, December 2, 1937.

"Sŏkkuram ūi wigi." *Tonga Ilbo*, October 14, 1948.

"Kojŏk pojŏn ūi chŏngsin kwa t'ae-do." *Chosŏn Ilbo*, December 12, 1955.

"Kukpo pojŏn ūi wigi." *Tonga Ilbo*, April 1, 1960.

"Sŏkkuram tŭng sich'al." *Chosŏn Ilbo*, March 31, 1962.

"Chegagi kong ūl apsae-wo." *Kyŏngnyang Sinmun*, October 18, 1963.

국문초록

본고는 1960년대 시행된 석굴암 수리 내역을 재검토하여 변형된 석굴암의 구조와 그에 기반한 우리의 인식을 살핀 글이다. 박정희 집권 초기 이뤄진 석굴암 보수와 복원 공사는 현대와 전근대적인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재 관리와 보수의 선례가 되었다. 당시 보수는 일제강점기에 씌운 주실 외부의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한 층 덧씌워 주실을 이중 돔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꺾여 있던 입구의 팔부중상을 직선형으로 펴고 그 앞에 목조 전실을 세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석굴암을 인도에서 전해진 석굴사원의 한 갈래라고 파악하고, 석굴암이 원래 방형 전실과 원형 주실의 이중 구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석굴암이 호국 사찰이자 신라 왕실의 원찰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이때 정립되었다. 김대성이 건설한 석굴암은 본디 원형 평면을 지닌 주실만으로 구성된 단일한 불당이었으나 이 시기 보수를 거치면서 밀폐된 전실이 더해진 구조로 변형되었다.

Abstract

Originality and Alteration:

The Repair and Restoration of Sökkuram Grotto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Kang, Heejung*

This paper re-examines the details of the repair work conducted on the Sökkuram Grotto in the 1960s to analyze the altered structure of the grotto and its subsequent impact on public perception. The restoration, carried out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mbined modern and pre-modern methods and served as a precedent for state-le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Key structural modifications from this period include the addition of a second concrete layer over the Japanese colonial-era concrete dome—creating a double-dome structure—and the realignment of the “Eight Legions” (P'albujung) at the entrance from a curved to a straight configuration, fronted by a newly constructed wooden antechamber. As a result of these interventions, a specific historical narrative was solidified: Sökkuram began to be perceived primarily as an offshoot of Indian cave temples,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consisting of a rectangular antechamber and a circular main chamber.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Seokguram as a state-protecting (*hoguk*) temple and a private prayer hall for the Silla royal family was established during this time. While the original Sökkuram built by Kim Dae-söng was a single Buddhist hall with a circular floor plan, these repairs transformed the hall into its current enclosed structure with an integrated antechamber.

* Professor, SIEAS / Asian Studies, Loyola International College, Sogang University